

初期 漢陽都城計劃의 圖形的 解釋에 關한 研究

鄭基浩* · 金龍基*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Geometric Form of the Preliminary Plan "Hanyang" in Early Chosun Dynasty

Jung, Ki-Ho*, Kim, Yong-Ki*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phenomena of the city plan Hanyang (old city Seoul). It consists of two steps. One is to search for the constructing principles of the geometric setting. And the other is to inquire and interpret the objects of beginning and ending points of that setting.

The results based on geographic analysis and historical facts are as follows :

- 1) The city plan Hanyang shows a certain hierarchy; the major axis and the locations of the palace and the city set up in the priority. This priority made onto lower hierarchical plans such as the site plans of palaces and city wall. For example of the significant objects are Namdaemun (South Gate of the city wall) and Kwanghwamun (South Gate of the Palace). They are on the main axis, and became the basic points of the detailed city plans.
- 2) The palace places on its major axis, right-angled minor axis, and 4 grade inclination to north. The four small city wall gates located on the base of four greater gates.
- 3) The geometric characteristics as constructing principle found on certain hierarchical order. Thus, the natural elements as mountain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arrangement of major facilities and those main constructions made on lower -hierarchical settings.
- 4) These facts related closely to the philosophy of Jung, Do-Jon, the initiative planer of the Hanyang.

I. 서론

본 연구는 한양도성계획상 建都期에 나타나는

역사경관을 살피고, 이들 역사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밀접히 관계되었던 특징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자연요소와 자연현상이 이들 역사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적 현상의 중요한 동기 내지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역사 경관과 자연이 서로 관계되는 과정에서의 중간매체는 공간계획 상에서 나타나는 圖形性(또는 作圖的 原理)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적 기본방향이다. 즉 한양이 都城으로 되어간 과정을 역사적 기록에 의거한 기술이 아닌, 공간계획의 과정으로서의 실상의 골격을 조명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연구가설은 그동안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로부터 검증되어온 공간구조 상에 나타나는 도형성 내지는 작도적 원리에 대한 검토로써 세워질 수 있다.¹⁾ 본 연구는 크게 두단계로 구성되었다. 그 하나는 역사경관이 자연현상과 공간조영적으로 매개되는 중간매체로서의 도형성과 작도적 원리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로는 도형 또는 작도상에 나타나는 작도선의 기점 중점이 되는 대상이나 현상을 검토하고 해석하는 일이다. 그중 前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한양도성계획의 초기현상, 즉 定都期에 나타난 현상을 지형도 상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도성계획에서 보이는 공간구조적 특징을 살피고, 오늘날의 서울 지도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건도초기에 건설된 殿閣과 주요시설들을 서울 주변의 자연조건 상의 특징들과 상관하여 작도를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後者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초기현상에서 보이는 도형적 특징에 대한 해석으로 도형성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양도성계획을 비롯한

여타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검토하고 폭넓은 토의를 위해 고찰하는 형식을 취했다. 본 연구의 작업대상 및 근거가 되는 현상적 자료는 鄭道傳의 사상 및 한양건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과 오늘날 현존하는 제 현상을 종합하는 방법과 범위로써 한정하였다.

1. 漢陽都城計劃의 背景과 鄭道傳의 思想에 관한 고찰

한양은 이미 고려의 남경으로 離宮이 있던 곳이므로해서, 태조가 한양천도를 단행한 때는 무인지경이거나 산간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다. 더우기 고려의 남경을 이루게 되는 배경이나 그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는 道誥의 한양가를 비롯한 제 사항을 살펴보면 더욱 仙境으로서의 한양의 면모와 명성을 익히 알아볼 수가 있다.²⁾

그러나 1394년 8월 24일 한양으로 도읍을 결정하여 10월 25일 한양천도를 단행하였을 때의 한양에는 궁궐 관아 등 수도로서의 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궁궐, 종묘, 사직단을 건설하여 수도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춘 후, 태조는 도성축조를 결심하여 왕 4년(1395) 윤 9월 13일 都城築造都監을 설치하고 특히 判三司事 鄭道傳에게는 城基를 정하도록 하명한다.(원영환, 1990:131) 이미 궁궐,종묘,사직단을 주관하였던 정도전은 그 경험을 살려 한양의 산세와 지형을 답사하고 측량하여 城基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영

- 1) 공간조영 상에서 도형성이 보이는 것으로는, 신라고도 경주의 도시차원적 공간구조, 불국사 배치형식,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형형식 등 신라의 것을 비롯하여(정기호, 1991, 1992a, 1992c) 조선시대의 여러 대상 즉 중기 이후의 서원의 입지적 특성(이상운, 1994), 정자와 방지 및 석조물(정기호, 전미경, 1994), 그리고 華城(정기호, 1993)을 비롯한 읍성과 함께 한양도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들에서 살펴지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총괄 정리하면 분석방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도형성이 지닌 두가지의 특징이 드러난다. 즉 방위각 개념과 주변경관과 상관된 현상의 매개수단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각 대상의 입지적 특징은 주변경관과 일정한 방위각에 의하여 상관되고 있으며 서로 상관되고 있는 주변경관의 대상은 특히 산을 비롯하여 亭子, 石物, 바위, 老巨樹 등 주변 대상들이라는 점을 볼 수 있게 된다.
- 2) 고려시대에 논의된 한양의 땅에 대한 내용은 원영환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한양이 풍수지리설에吉하다는 것은 이미 고려 숙종때 김위제가 누차 말했다. 즉 ‘道誥記에 고려땅에 三京이 있어야 하는데 송악을 中京으로하고 木覓壤을 南京으로하며 平壤을 西京으로하여... 또한 고려가 개국한후 160 여년에 木覓壤에 도읍한다고 하였으니...’ 라고 하였다. 또한 김위제는 道誥의 踏山歌를 인용하여 ‘松京이 망한 후에는 松京의 東南間方に 도읍지가 있는데...’ 라고 하였다. 삼각산 명당기에는 ‘삼각산은 北을 등지고...’ 라고 하였다. 또한 神誌秘詞에는 삼각산 남쪽의 五德丘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원영환, 1990:130-131)

환, 1990:132) 이와같은 史實의 기록을 근거로한 이야기로부터, 도성계획의 시작에서 끝은 말하자면 정도전의 구상에서 시작되고 그 기본골격이 구체화되며, 그 기본골격은 이후 정종때 개경 환도하여 태종때 한양 재건도한 이후의 지금까지의 한양과 서울의 바탕을 이루어 왔을 것임을 명료히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학과의 논쟁에 관한 설화에서도 보이듯, 삼봉에게 있어서 궁과 城의 向은 어디까지나 남향이 되어야 할 어떤 원칙론에 입각한 절대절명의 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向과 관련된 과제는 도성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되어야 할 궁과 左廟右社의 원칙과 함께 도성계획을 위한 엄정한 계획이론의 기본골격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궁과 廟-社를 염두에 두고, 그에 우선되는 주축은 어떤 요인과 결부시켜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향하는 선으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지금

까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소위 명당의 혈처를 중심삼아 펼쳐지는 방위론을 軸과 방위설정의 기준으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정설에 입각한 절대적 가치가 확실함으로 있는 것도 아니며,³⁾ 무엇보다도 삼봉 자신의 士에 대한 신념과 자신의 성리학적 철학사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풍수 등에 의탁함이 삼봉에게 있어서 쉬 용납되는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⁴⁾

삼봉의 철학적 면모는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만, 본고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認識論은, “객관적 물질세계 및 자연현상의 존재와 그 운동법칙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한영우, 1989:70)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자연의 변화는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며, 그 법칙성을 인간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 3) 한양천도를 결정하기까지 새 왕조의 뜻 권력자들이 제 후보지에 관한 수없는 논의와 답사들을 하며 秘錄을 참고하였으나,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해(1994)는 왕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의 검토를 통해 조선조초에 있어서 풍수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따라서 한양건도에 있어서 풍수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 4) 삼봉의 인물과 사상은 한영우의 「정도전 사상의 연구」에 잘 서술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에 의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선의 창업이후 도성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연륜은 그의 몇몇 저술을 통하여 살펴볼때, 주로 40대의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개혁정신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이면에 깔린 그의 사상적 바탕들인 것이다. 學者指南圖(한영우, 1989:34)는 그 실체를 접할 수는 없으나 그 題名으로부터 선비로서의 태도와 관련한 “指南”이라는 성격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며, 그 즈음의 것으로 추정되는 兵書 八陣三十六變圖譜와 術書로 추정되는 太乙七十二局圖(한영우, 1989:35)는 그가 중요히 여기고 있던 방위에 입각한 생각과 특히 太乙(= 太一:복극성)은 占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五星座 개념의 우두머리, 즉 五帝 위의 上帝로 인식되는 天神의 으뜸대상인 것이며, 여기서 삼봉 자신이 太乙星을 섬기었느냐 아니냐와는 무관하게 그의 사상이 방위와 그 방위의 핵이 되는 대상으로서의 太乙이라는 실체와 결부되어 나타난 것으로 수용할때 별무리가 없는 연상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기타 曆書나 의학서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저술을 포함하여 이들을 종합할때, 피상적으로는 兵術, 曆, 醫 등에 관심을 두었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것으로 될 것이지만, 이는 어떤 원칙론에 입각한 그의 생각이 각 실생활의 응용부문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며 진실로 그의 관념은 음양과 관계된 그리고 그의 활동요소로서의 易이 결부된 보편적인 우주론에 입각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경국전(1394)의 기본 개념중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仁으로써 왕위를 지키는 것”(한영우, 1989:39)에서 보이는 천지자연의 이치라는 명제라든가, 經濟議論(1397)에 보이는 “군주의 몸가짐을 易의 입장에서 밝히려는 내용”(한영우, 1989:46) 등에서 바로 그의 철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그 즈음 한양천도 논의시 올린 상소 가운데 “地理의 성쇠가 전적으로 흥망을 결정한다고 믿지 않는다”(한영우, 1989:37)는 대목은 풍수나 도참에 관계된 설명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周禮考工記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바가 있으며 이들 견해는 참고할만 하다. 즉 조선의 국가이념으로서의 유교윤리체계기반으로한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이전 왕조들 보다 考工記의 原則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의 도시조성을 풍수적 입지선정과 국면해석, 周禮考工記의 유교이념에 의한 도시시설배치원칙을 양대기둥 삼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이상해, 1994:70-75)와 정도전에 의해 제시된 서울의 도시형태는 周禮의 다이어그램적 골격과 유기적 모습의 실제 및 세부적 요소를 띤 절충적 형태라는 견해(김한배, 1994:146-153, 이규목, 1993:84) 등이 있다.

있다는 것이다. “... 천체는 지극히 큰 것이지만 ... 八尺에 지나지 않는 璇璣(천체관측기구)와 수寸에 지나지 않는 玉衡(천체관측기구)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세월의 (길고 짧음의) 여부와 무관하게 算法의 곱셈이나 나눗셈에 의하여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佛氏雜辨, 한영우, 1989:70)

曆은 곧 천문관측기구와 수학을 이용하여 모든 자연현상의 법칙을 인식한 것으로써, 농업과 정치에 활용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며, 易은 자연현상의 현상의 해석에 의한 인간의 태도 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자연현상을 인식해 가는 구체적인 생각은 卽物窮理(한영우, 1989:84)로써 즉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진리라는 의미가 되어, 인간이 외계사물의 이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외계사물에 직접 처하고 접촉해서 그 이치를 窮究함으로써 우주자연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듯 자연현상에 있어서의 理의 탐구수단에 천문, 음양, 지리 등이 있으므로해서 士는 글에 의한 학문 뿐 아니라 이러한 術에 관한 것을 섭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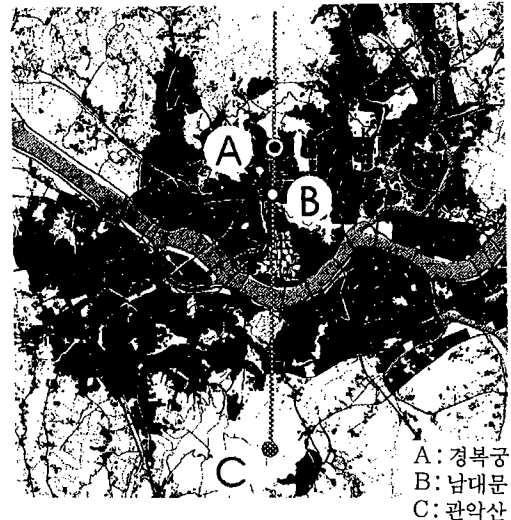
결국은 天人感應說(한영우, 1989:107)로써 그의 이러한 사상철학의 개념을 활성화할 이론을 세울 수 있는바, 천지나 인간이 모두 같은 원리(天理)에 의해 지배된다는 天人合一의 자연주의적 性理哲學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도성계획을 오늘날의 현황을 두고 逆으로 추정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기본개념은 이러한 삼봉의 사상과 함께된 정리로써 그 합당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漢陽都城計劃

1. 軸의 설정

한양의 도성계획은 正軸의 설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축에 관한 것을 오늘날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 즉 경복궁의 배치형식과 결부하여 설명해 보면, 이 축은 근정전-광화문의 중심을 잇는 남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圖北을 기준으로하여 동쪽으로 편향된 약 4도의 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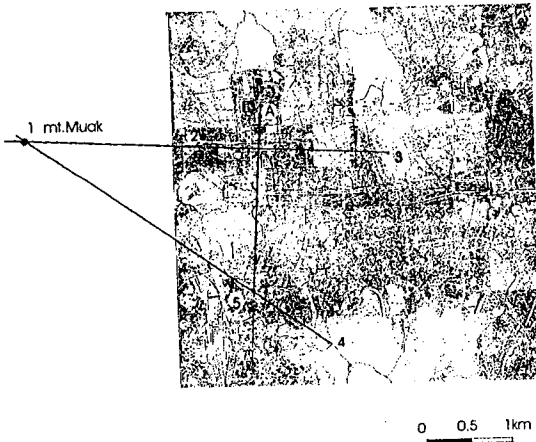
기를 가지며, 그 기점은 관악의 산봉이 된다.



(그림 1) 한양도성의 正軸

(그림 1)은 한양도성계획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사항인 都城 正軸이 설명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 正軸이 실제의 작도상에서 필요한 실체에 입각한 기준점과 그 작도되는 線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축은 관악에서 약 4도 기울기로 동편향된 선으로 나타난다. 관악산봉에서 시작된 이 正軸선상에는 남대문-광화문(북원이전의 원 자리를 추정한 지점임)-근정문과 근정전을 비롯한 도성의 중요한 지점들이 놓여 있음으로써 이 축은 경복궁을 위한 주축이면서 동시에 도성계획을 위한 주축의 역할을 행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성계획의 원칙에서 이미 정설화 되어있듯이, 정축상의 궁을 중심으로 좌우 어느 곳에 각각 종묘와 사직단을 두는 左廟右社의 원칙과 함께, 도성과 궁의 대문인 남대문과 광화문이 정축에 놓인 이 현상으로부터, 한양의 도성계획은 이 정축의 설정에서 시작되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축의 설정에 결부되어 제2, 제3의 부축선에 의하여 중요지점들의 입지가 나타난다. 예를들어, 좌묘우사의 원리의 적용과 함께 주요 기간시설의 입지는 다음과 같이 살펴진다. 즉 毋岳(鞍山)의 정상으로부터 정축에, 직교되는 선은 사직단과 종묘의 정전으로 이어진다.



A: 경복궁 1: 안산(무악) 2: 사직단 3: 종묘정전(문)
4: 남산(잡두) 5: 남대문

(그림 2) 광화문과 남대문의 결정

이러한 副軸과 正軸이 교차되는 점이 광화문 앞 약 10미터 지점(그림 2의 점a5)이 되고 있으며,⁹⁾ 안산과 남산잡두를 잇는 선이 정축과 교차되는 곳에 남대문이 있다. 즉 정축에서의 광화문과 남대문은 각각 鞍山과 정축의 직교지점과, 鞍山과 南山을 잇는 선과의 교차점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로써 궁과 도성은 기본계획을 위한 着點을 각각 마련한 것이 된다.(그림 2)

이렇게 살펴본 도성계획에서의 주요지점들의 정확한 지점설정은 어떤 관계로써 결정한 것인

가. 안산에서 이어진 정축에 직교하는 부축선이 사직단, 종묘정전과 상관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의 합당한 요소를 주변의 자연요소에서 살펴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뚜렷한 대상은 자연요소일 것임은 틀림없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산봉이었을 것이다.

정축과 부축 그리고 특정한 향 등에 의한 주요 지점의 설정을 현황에 의한 분석결과로써 추정할 때, 한양의 도성계획은 정축의 설정에서 시작된다. 한양천도 이후 궁과 종묘 사직단을 설치하고 곧 도성축조에 착수한 바와 같이 그 축조되는 史實的 순서에 입각하여 풀어 본다면, 먼저 궁과 종묘 사직단의 결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상의 중요 지점 설정을 현황분석에 의해 살펴보고 그로써 계속 살펴지는 궁과 성곽계획을 각각 四門이 설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宮-宗廟-社稷壇의 설정

남대문과 근정전 간의 축상에 (그림 3)과 같이 등간격의 지점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즉 남대문a₀과 광화문앞의 점a₅ 간을 5등분하고, 5등분점 간의 거리만큼의 길이를 연장한 곳에 점a₆을 설정한다. 점 a₃은 현재 광화문 파출소 부근에 해당한다. a₃을 중심으로 근정전(A) 및 a₆을 반경으로 하는 동심원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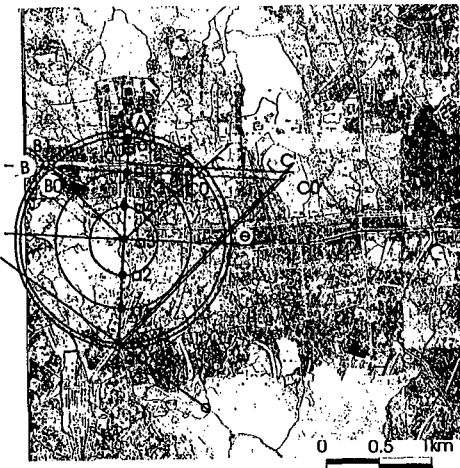
점 a₅에서 원 a₃의 접선이 원 a₆과 만나는 점을 각각 B₀ 원a₆과의 교점을 A₀C₀라 하고 정축 상의 (=점a₆)라 하면, A₀:근정전 前面, B₀:사직문이 된다. (C₀는 C₀'(종묘정전門)의 설정을 위한 전단계로 보임. 후술참조) 이는 a₀가 남대문이었던 원a₆의 원호상에서 주요시설의 門들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₃에서, 도북기준으로 45도 방향선이 무악 기점의 부축선과 만나는 점을 B₁이라 하고 a₃을 중심으로하는 원B₁을 그려서 정축과 부축과 만나는 점 A, B는 각각 근정전과 사직단이 되고, 정축기준으로 45도 방향선이 원B₁과 만나는 점C를 설정하고 점C를 정축에 직교하는 선으로써 연장된 곳에 종묘정전 C₀가 놓인다.⁹⁾

5) 鞍山에서 정 동서방향선이 정축과 만나는 점이 광화문임. 성곽 및 궁의 분석에서는 4도 기울기의 축과 함께 도북기 준축이 많이 등장함. 이 둘의 존재와 의미는 구체적 검토의 여지를 지남. 광화문 앞 10m 지점이 지닌 장치와 의미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광화문 설정의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 (그림 6)을 참조.

근정전A과 사직단B은 각각 a_3 을 중심으로한 같은 원호상에 놓인다. 즉 원 B_1 상에 사직단B, 근정전A, 그리고 점 C가 오고, 원 a_5 의 접선과 원A가 만나는 점 B_0, C_1 를 설정할때 B_1 은 사직단이며 정축에 직교하는 C의 연장선 상의 C_0 는 종묘가 된다. 이로써 A근정전, B사직단, C_0 종묘는 같은 위상의 동심원 상에 놓인 원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도성의 기본계획의 핵심이 된다.

(그림 2, 3)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지점결정의 순서가 드러난다:

- 1) 안산과 정축의 직교되는 점을 광화문 앞 a_5 로 하고,
- 2) 안산과 남산을 잇는 선으로써 정축과 교차되는 곳 a_6 을 남대문으로 한다.
- 3) 근정전-사직단-종묘의 위치가 남대문-근정전의 중간지점 a_3 에 중심을 둔 동심원 상에서 동등한 차원으로 설정된다.
- 4) 이상으로써 도성계획의 중요한 기본운곽이 정해진다. 이 기본운곽에서 先決定된 기준점으로부터 궁과 성곽의 기본계획이 진행되며 그 각각은 다음과 같이 四門의 설정을 중심으로 살펴진다.



a_0 - a_6 : 남대문-근정전 간의 등간격 지점 2: 사직단 3: 종묘 4: 남산잡두 5: 남대문 A: 근정전 B: 사직단 C: 종묘기준점 (C_0 : 종묘정전, C_1 : 종묘정전문)

(그림 3) 축상의 중요지점설정 및 중요지점의 동심원적 배치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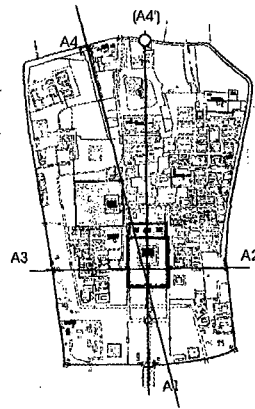
3. 궁의 배치계획

1) 四門의 설정

경복궁의 四門은 각각 동서남북의 四方位에 입각한 지점설정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던 것임을 살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북문에 해당하는 신무문은 예외적인 방위설정에 따른 것으로 살펴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 5):

궁의 동문 건춘문 A_2 와 서문 영추문 A_3 은 주축에 직교하여 설정되는 근정전 회랑의 좌우 兩樓와 같은 선상의 부축 상에 놓이며, 광화문 A_1 은 주축 상의 남쪽에 놓임으로써 이들 세 문은 각각 東, 西, 南의 세 방향에 놓인 것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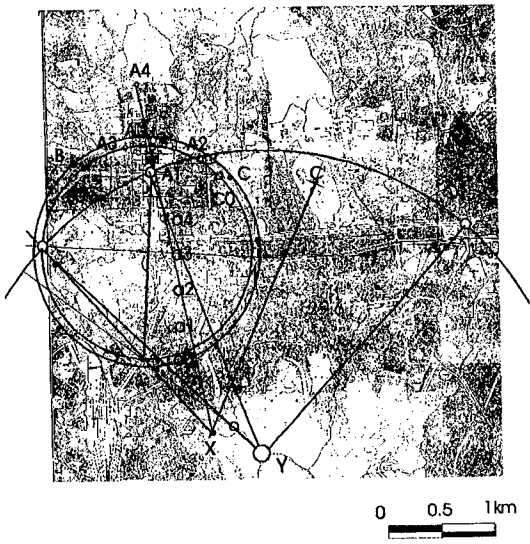
북문에 해당하는 신무문 A_4 은 이상의 세 문과 같은 원칙에서 적용되었다면 주축 상의 北(A_4')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다소의 예외적인 적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의 고찰을 위하여는 종묘 정전의 설정과 관계된 다음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그림 6)의 점 X는 현 남산 식물원의 자리가 되며 여기서 근정문을 잇는 연장선 상에 신무문이 놓이고, 동시에 이 방향선이 신무문의 向이 된다.⁷⁾



a: 축, b: 근정문-신무문을 잇는 선
c: 건춘문-영추문을 잇는 선(a에 직교하는 선)
A1: 광화문 A2: 건춘문 A3: 영추문 A4: 신무문

(그림 4) 경복궁의 四門

6) C_1 는 이 부축선과 남대문 a_6 -점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점으로써 결정되고, C_0 (문)은 남대문 a_6 앞 원 B_1 상에서 평행되는 선과 B_0 - C_0 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으로써 결정됨. 점e는 전도초기에 있었던 종각의 위치일 것으로 추정됨.
7) 남산식물원이 있는 자리는 일제식민기의 조선신사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지만, 조선시대의 상황과 함께 추후 구체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광화문은 정확하게는 남산정상 Y에서 동대문 및 서대문(서대문설정기준점 d를 말함) 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 한 원호상에 놓이며 이는 또한 점 a_5 와 a_6 의 1/3지점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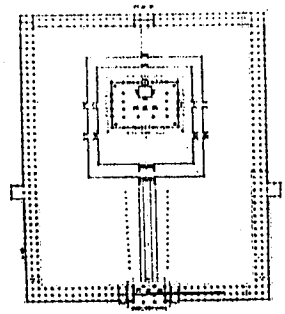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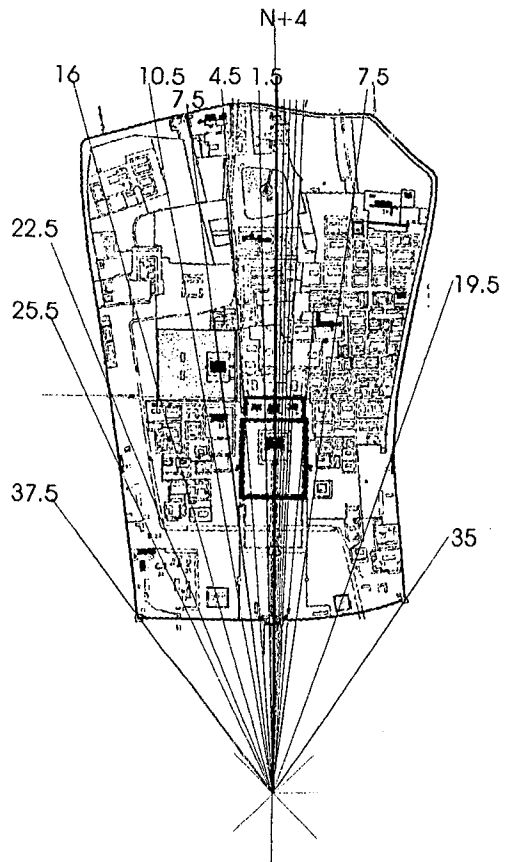


- (A1): 광화문 (A2): 건춘문
- (A3): 영추문 (A4): 신무문
- C: 종묘정전 X: 현 남산식물원
- Y : 남산정상

(그림 5) 신무문과 종묘의 向

2) 근정전의 배치계획

근정전 마당에 놓인 2열의 품계석은 서로 평행하지 않다. 각도 상으로는 1도의 기울기를 가지며 축에 좌우대칭되어 있다.(참고도) 이 두열의 품계석 선을 연장하면 근정문을 기준으로 대략 480미터 앞 지점에서 축과 한점에서 만나게 된다. 즉 품계석은 이 점에서 1도 기울기의 방사선 상에 배열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중심으로 경복궁의 주요 지점들을 이으면 (그림 6)과 같은 분석결과가 나온다: 경복궁은 축을 기준으로하여 근정전 일곽의 주요부를 제외하고는 좌우대칭의 배치형식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6)에서 표현한 것은 0.5도를 단위로한 방사선을 그려서 특별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발채하여 나타낸 것이다.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은 축을 기준으로하여 각각 35도와 37.5도 방사선 상에 놓이고, 동문과 서문인 건춘문과 영추문은 각각 19.5도와 25.5도에 해당한다. 근정전은 좌우 1.5도 범위에 그리고 회랑은 4.5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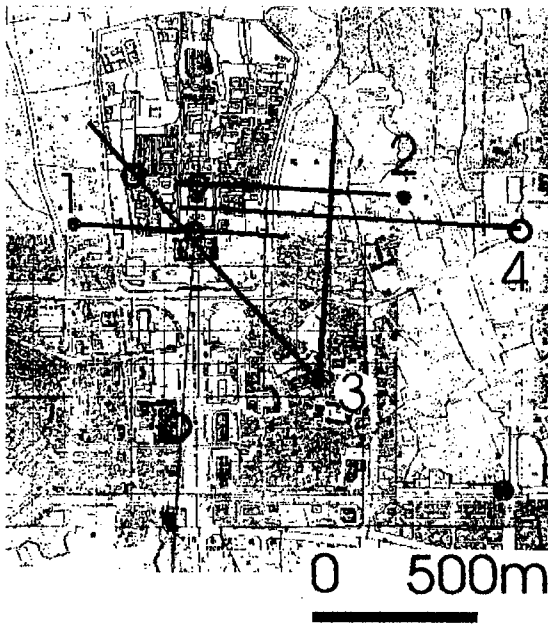
(그림 6) 경복궁 배치계획의 방사선 분석

과 원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기호,1992a를 참조)

3) 白松과 경복궁

경복궁 인근에 있는 세그루의 백송은 각각 통의동과 재동 그리고 조계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7) 통의동 백송과 재동 백송을 주축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어보면 각각 근정문과 사정문과 만나며 조계사 백송을 주축을 기준으로하여 45도 방향으로 이으면 근정전 회랑 남서단 및 경회루 연못의 남서단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류의 현상은 현 현대사옥 앞의 觀天臺에서도 볼 수 있는데, 관천대에서 주축에 직교하는 방향의 선을 그어서 이것이 주축과 만나는 지점은 근정전 앞 벽면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성계획 초기에 있어온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경복궁의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지점설정을 확인시키는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1: 통의동 백송 2: 재동 백송
3: 조계사 백송 4: 현대사옥앞 관천대

(그림 7) 백송과 경복궁의 관계

4. 성곽계획 : 四大門과 四小門의 설정

도성의 성곽계획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궁과 종묘 사직단을 완료하고 곧 축조계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태조가 정도전에게 城基를 확정하라고 하명했다고 알려져 있다.(원영환, 1990:131)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남대문의 지점은 이미 상위계획에서 선결된 사항이었던지,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마스터플랜 상에서 결정된 것이며 城基확정의 하명은 이제 그 선과 점을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이루는 단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성곽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성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중심이 되는 한 점으로부터 나오는 방위에 입각한 선에 의해 사대문이 결정되고, 사대문을 기준으로한 부수되는 선으로써 사소문의 설정선이 마련되었으며 거기에 자연지세에 의한 성곽의 윤곽선이 마련됨으로써 성곽과 문의 지점이 하나의 점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도성계획을 밝힘에 필요한 내용을 史實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직단의 정문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며, 그 원형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현지의 안내판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이전 복원된 위치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도 수차례 자리가 옮겨져 왔던 것으로 보이며, 사직단고증조사보고서(서울특별시, 1985:76)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의 원 위치는 현재 복원된 사직단의 북쪽 홍살문 근처의 종로도서관 올라가는 길의 어린이 도서관 있는 언저리의 도로 정도에서 추정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사실에 해당되는 근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 보신각은 태종때 1415(1412?)년에 현재의 신축된 지점에서 좀 앞쪽에 있던 70년대의 그곳에 옮겨온 것이며, 원래는 현재 탐골공원옆(인사동입구대로에 있었던 청운교 서쪽)에 있었다.(서울육백년사 1권:311) 원각사는 원래 고려시대의 홍복사 폐사지에 새로이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규태, 1993:359), 애초부터 종각은 바로 홍복사지에 세운 것이 된다.
- 서대문은 원래 사직골(현 사직동에서 독립문으로 넘어가는 언덕밭이)에 있던 것이 후에 폐쇄되고 그 남쪽에 새로이 건립되었다가 (태종13년, 1413), 세종 4년(1422)에 최종 위치에 다시 옮겨져서 일제시대에 소실되었다. (원영환, 1990:147) 현 MBC 경향신문사와 고려병원 간의 언덕밭이 즈음에 있었던 것은 세 차례 이권된 최종위치의 서대문이었다.
- 북대문인 숙정문은 연산군 (1504) 때에 원래

위치(백악산의 동쪽 마루턱)에서 약간 동쪽으로 옮겨져 지금의 복원된 곳에 오게된 것이다.

- 광희문은 원래 현재의 타워호텔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던 남소문이었으나 곧 소멸되고 현 광희문의 원래 위치에 남소문으로 새로 지어졌다. (이규태, 1993:309) (세조때 1457년 광희문 남쪽에 남소문 건설, 예종 1년 1469에 폐쇄)

도성계획에서 남대문과 광희문의 장소가 결정되었고, 그에 의하여 도성은 궁과 성곽에 관한 세부계획이 이루어졌다. 궁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같이 四門의 설정을 살핌으로써 그 골격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도성의 경우는 성곽과 함께 四大門 四小門에 관한 결정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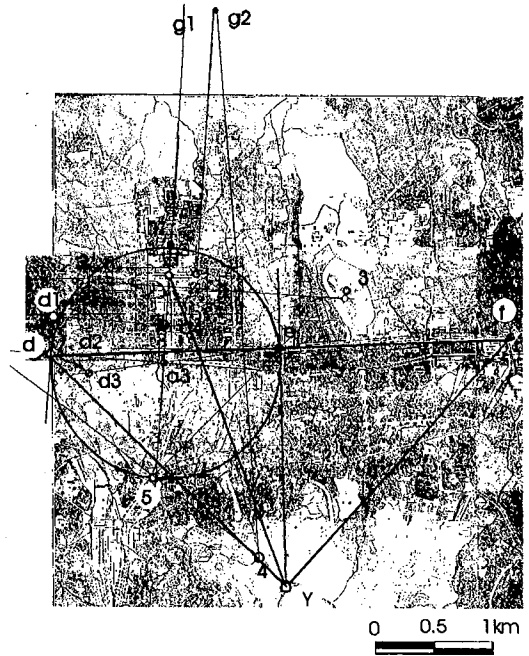
1) 四大門

점 a₃를 중심으로하고 남대문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하는 원B₁의 원호와 점 a₃에서 주축에 직교하는 부축이 만나는 점d를 잡고, 점d에서 원의 접선(주축과 평행됨)을 그어 능선과 만나는 점 d₁(사직터널 즈음)에 태조 5년에 세워진 서대문-1이 있었을 것이고,⁸⁾ 점d에서 남산정상에서 정북방향의 선이 원B₁과 만나는 점 e의 연장선상에서 d-e간 거리의 2배수되는 지점 f가 동대문이다. 주축(N+4도)이 북 능선과 만나는 지점g₁이 북문-1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되고, 동십자각을 기점으로 주축과 평행한 방향(N+4도)의 북 능선 지점 g₂에 북문-2 (현 숙정문)가 있다.⁹⁾ d에서 점e를 잇는 축이 능선의 성곽과 만나는 지점 d₂가 서대문-2이며, e-a₃의 연장선이 성곽과 만나는 점이 서대문-3(현 고려병원 앞 언덕즈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사대문은 몇차례의 자

리 이동한 북문과 서대문을 포함하여 논리적인 작도로써 분석된다.

2) 四小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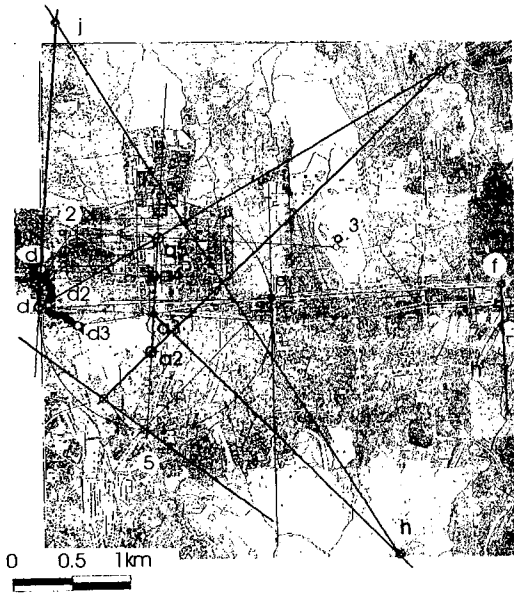
점 a₃에서 남동 45도방향에 남소문h¹⁰⁾이 오는 것으로 살필 수 있고, 남소문에서 동십자각을 지나는 대각선방향에 북소문j이, d와 a₃를 연장한 선상에 동소문k이, 그리고 동소문에서 a₂를 잇는 연장선상에 서소문이 놓인다. 이때 성곽은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이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성곽선과 위의 각 방향선이 만나는 지점들이 사소문의 정확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d:서대문 설정 기준점 f:동대문
g:북문 Y:남산정상 4:남산잠두 5:남대문

(그림 8) 四大門의 지점설정

8) 태조 5년에 건립된 돈의문은 오늘날 사직동에서 독립문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짐작함.(원영환, 1990:147)
 9) g₂는 동시에 점4의 남산잠두에서 N-4도 방향선과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함. g₁은 그 위치 추정에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제반 작도원리에 입각하여 적합한 것을 찾아 본다면, 북악을 중심으로 창의문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한 원과 주축선의 연장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10) 타워호텔과 한남동 사이의 언덕반이에 있던 원 남소문을 말함. 후에 이 건된 남소문(광희문)h'은 동대문에서 d-f에 직교하는 수직선으로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음.



h:남소문 (h':광희문) j:북소문(창의문)
k:동소문(해화문) l:서소문(소의문)

(그림 9) 사소문의 설정

Ⅲ. 기타 조선시대의 공간계획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의 비교고찰

도성계획을 구상하던 단계에서 예를들어 삼봉과 같은 사람은 우선 목맥에 올라가 한양뼀을 내려다 보며 마스터플랜을 위한 그림을 떠올려 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무엇보다도 산수의 자연경계를 그 구상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수려한 산과 그 봉우리였을 것이고, 이 산봉들을 그 아래에 펼쳐진 넓은 들과 서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또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산 중에는 예로부터 회자되어 왔던 삼각산은 물론이거니와 백악과 인왕은 목맥과 함께 한양을 위시하는 것들이며, 河倫에 의해 무수히 논의되어 왔고 태조 개인적으로도 그 산 아래에 천도하고자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岬岳도 한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산맥이 흘러내려 땅속으로 스며들다가 갑자기 불쑥 솟아나 결국은 삼각산을 이루게 해준 道峰은 곧 삼각산의 원조

이며 祖宗이 되므로해서 그 존재 역시 마음에 쓰이는 중요한 산천경계의 한 요소가 되어 온다.

단번에 뛰어 넘어야할 600년의 시간과 삼일빌딩을 비롯한 몇 고층빌딩이 꼭 들어찬 강북의 공간을 뛰어 넘어야 하는 時空研究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러기에 도성계획의 초기현상을 순리적으로 살피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방편적으로 지도와 도면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역고찰하여 추적해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태조대의 초기 도성계획의 현상을 대상으로 살펴, 궁과 종묘 사직단 그리고 모든 대소문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상에서 방위는 절대절명의 기본사항이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方位는 곧 自然의 理致와 條件을 人間事에 결부시켜주는 바로 그 매개수단으로서의 中間子였음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요요소의 지점결정이 자연현상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곧 인간을 위한 어떤 시설에 관한 결정이 그 근간에는 자연 및 자연현상에 의탁된, 인위적 사항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있다.

본 연구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연구결과 및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들과 관련하여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폭넓은 논의사항이 생긴다:

宮苑을 구성하는 亭子-方池 등 규모에 있어서 다소 작은 대상의 조형에서도 도성계획에서 살피진 자연현상에 의한 依他起的 결정과 같은 맥락이 보인다. 즉 형태결정의 근간에는 엄격한 數理的 圖形性에 입각한 원리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정기호, 전미경, 1994의 淸의정 및 열상진원도해)

조선후기의 華城計劃에서 보이는 같은 류의 현상도 주목된다. 수원의 화성계획의 분석결과에서 보이는 도형성은 그 기본이 易의 적용에 있고, 그 적용의 세세한 것은 한양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조선시대의 공간계획에서 중요히 적용된 기본원리의 특징을 그로써 잘 살펴 볼 수 있다.(정기호, 1993의 수원성 도해)

도성계획이 이루어지던 즈음, 입지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논의되는 것 같이 결코 風水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

았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하여(이상해, 1994:47-72) 본 연구의 결과 도형적인 작도에서 결정되어 간 것으로 보이는 근정전의 기준점이 동시에 풍수국면의 穴에 해당될수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도 거의 無에 가깝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풍수관련 해석이나 견해는 다른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해 진다. 본 연구에서 밝혀본 제반 작도적 분석은 다분히 현존 또는 사료상에서 유추되는 결과물을 전제로한 결과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고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미 의도된 바에 의한 개념과 특정한 시설들의 입지도 그에 따라 개략적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확정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살핀바와 같은 작도적 상황으로써 최종확정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作圖的手段으로써 이들의 입지를 확정했던 배경은 두가지의 측면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극히 기능적인 일로써 상위개념에 의한 주요시설들의 입지는 하위차원의 시설물들을 위한 측량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상위차원의 주요시설들의 측량기준점으로 山을 비롯한 중요한 자연현상들이 관계되어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다른 하나로는 이 같은 기능성을 바탕으로한 상징적인 의미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도성계획의 正軸과 관련하여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어서, 方位는 자연의 이치와 조건을 인간사에 결부시켜 주는 매개수단으로서의 중간자가 되었을 것이다. 정축의 기점이 되는 관악산을 비롯하여 남대문 광화문 등 정축에 교차되는 副軸설정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던 鞍山이나 南山과 같이 자연의 이치와 인간사를 상관시킨 중간자로서의 산은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었다. 도성계획에서 중요히 작용된 자연요소들 특히 산과 관련된 내용은 정축 설정의 기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악산봉과 함께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서론에서 던져본 문제, 즉 도성계획의 기본개념을 삼봉의 사상으로써 설명할 일로 남는다. 정축을 따라 작도하여 남으로 계속

이어보면 이 축선은 관악산봉에 맞춰진다. 축의 설정으로써 보이는 제반 현상은 그것의 상징적 의미 이전에, 그 후대의 언젠가든 이것이 실제공간에서 측량되기 위해 요구되는 BM과 같은 실제적 기준점으로서 요구된 것이며, 동시에 전통사상 또는 삼봉의 사상과 결부되어, 자연의 현상은 개념상의 인식 뿐만 아니라 실제의 객관적 사물으로써 함께 결부됨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철저한 합리주의적 관점이 되기도 할 것이다. 즉 인위적 작도가 아니라 자연현상에 보이는 그 잠재력으로써 그은 線이었던 상징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지녀간다. 이것은 전통사상에서 종종 거론되는 易의 개념과도 결부시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간계획이 易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華城을 들 수 있다.

한양도성계획에서 정축의 설정으로써 나타내 보인 기본이념을 천인합일이라는 명제로써 정리될 수 있는 정도전의 사상과 관련하여 살펴 볼 때, 이는 곧 물질세계와 자연현상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며 성리철학의 天理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윤리도덕의 규범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한 인공적 공간계획에 적용되는 원리 내지는 기본이치로 작용되었을 것임을 또한 살필 수 있다. 정도전의 兵書 및 術書의 八陣三十六變圖譜나 太乙七十二局圖 등에서 보듯, 五星座 개념의 上帝(=太乙星)을 중심으로 方位와 방위의 核인 太乙(=북극성)이라는 실체와 결부된 공간성이 나타난다. 도성계획에서 이같은 적용이 상관될 여지를 가정하여 봄으로써 도성계획상 주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축설정의 배경(또는 기본이념)을 설명할 수 있고, 더불어 정축설정의 논리적 당위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축은 결과적으로보아, 도성계획을 위한 한양의 국면이 지닌 공간을 주도하는 질서를 위한 기준의 설정이다. 즉 주축상에 궁과 도성을 위한 남문이 설정되고, 그에따라 궁과 도성은 각각 요구되는 시설 및 대상들에 적합한 위계로써 일관된 공간배치가 도형적으로 설정됨과 같다. 정축이, 관악산봉을 기준으로 보아 4도 동편향된 기

을기를 지니며 북향함으로써 이 4도 기울기의 현상 속에 담긴 의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생긴다.¹¹⁾

조선경국전의 기본이념과 같이 천지자연의 이치라는 명제와 경제의론의 군주의 몸가짐을 易의 입장에서 밝힌 것 등 그가 지닌 원칙론적 사상이 실생활에의 응용의 모습을 보인 그의 관념은 易이 결부된 보편적 우주론에 입각한 철학이다. 한양도성계획은 정축과 그로써 도출되는 제반 계획상의 세부사항들로 이루어 살필때, 삼봉의 철학과 그것이 공간계획상에 적용되는 기본이념의 발현이자 질서정연한 일관된 계획원리로서의 논리적 당위성이 접쳐질 수 있는 중요한 중간매체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한양도성의 기본계획과 건설이 완료됨으로써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거의 갖출 수 있었고 따라서 태조 재위시까지의 건설 대상 중에서는 이제 문묘와 국사당이 남는다. 문묘와 국사당 및 경복궁의 배치계획을 비롯한 사직단, 종묘 등의 상세한 배치계획의 분석은 계속되어야 할 다음 기획에 미루기로 한다면, 이상에서 한양도성의 기본골격을 이루어간 전모가 거의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 전각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도성계획의 기본골격과 상관된 계획원리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할 것임은 물론이고, 창덕궁과 창경궁 등 태종의 한양재천도 이후 도성의 면모가 거의 잡히게되는 세종대까지의 실시상황에서 초기의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시행되었는가는 앞서 거론해 본 서대문의 경우로써도 미리 어느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도성과 수원성에서 보이는 공간계획적 맥락을 조선시대 邑城의 경우로써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즉 낙안읍성에서 개략적으로 살필 수 있는 현상은 門과 官衙 즉 성곽계획과 성내의 주요시설들의 계획은 서로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상호 긴밀

히 연계된 일환으로 나타나며 거기에는 산과 같은 주요 자연물이 결정을 위한 요소로 등장한다. 낙안읍성에서는 읍성계획과 연관되어 보이는 자연물은 주변의 산이 두드러져 보이며, 아울러 성내에 있는 노거수들 역시 이러한 기본계획에 연관되어 있었을 현상으로 나타난다.

풍수형국과 관련되어 이야기되기도 하는 노거수들이 실제 공간계획상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이들 전해오는 이야기가 이야기 이상의 어떤 내용과 접합되었을 것이란 생각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읍성계획의 세부사항과 결부되는 과정에서 중요히 다루어지는 표지물으로써 수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된다. 한양도성의 분석과정에서 보였던 세그루의 백송들의 입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만한 가능성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이같은 비교검토를 통하여 한양도성을 비롯한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진 제반 공간계획상의 원리는 어떤 뚜렷한 현상을 보임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개재된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그것을 관악산에서 시작되어 북으로 이어지는 정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 즉 이 정축은 왜 진북도 자북도 아닌 제3의 線으로 설정되었는가. 그에 합당한 논의는 경복궁의 배치계획에 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따로이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註11 참조) 그러한 단적인 예는, 한양도성계획을 비롯한 여타의 조선시대의 공간계획 과정에서 살펴질 특징, 특히 수원의 화성건설과 관련하여 다산의 易사상이 화성계획의 기반이 되었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좀더 명쾌한 원인은 삼봉의 사상과 관련하여 찾아 보아야 할 것임은 명백한 것이다.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도해에서 사용된 특정한 방위선, 四分, 八分... 등의 등각 방위선 또는 자연물과 자연물을 잇는 축선 등 그것이 지닌 경관성을 근거로 선을 긋고, 선의 교차점으

11) 정밀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연구자의 概算値에 의하면, 4도 기울기의 축방향은 도성계획 당시의 북극성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북극성을 지향한 축의 설정은 구체적으로 경복궁 배치에서 보이는 배치개념을 오성좌 개념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지만, 이에 관한 것은 천문적 계산과 아울러 추후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겨둬.

로써 지점을 삼는 것은, “자연의 법칙성을 인간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天體는 지극히 큰 것이지만, 천체관측기구로써 알 수 있으며 세월의 변화 역시 산법으로써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한영우, 1989:70)고 천명한 삼봉의 天人感應 또는 天人合一의 性理哲學은 사실상 도성계획의 도해결과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공간자료의 제시를 직접 뒷받침 할만한 史料의 자료에 미급함의 한계를 스스로 논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36方 및 72方 등 삼봉사상을 명확히 밝혀줄 사료적 연구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공간상에 나타나는 결과로써 살펴본 역사경관의 공간계획의 기본원리에 국한하고, 그로써 추정해석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경관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서의 자연물 및 자연현상에 관한 것의 일면을 살펴본 것으로 한정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IV. 結論

한양도성의 초기현상을 중심으로 도성계획의 공간구조적 분석을 해본 결과를 圖形性과 作圖的原理 및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도형성의 機能과 解釋’이라는 두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성계획에서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반 계획원리와 그 결정적 영향요인은 근본적으로 자연현상 또는 자연현상과 질서를 해석한 체계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결정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그것을 결정케했던 대상요소도 중요가치의 정도에 따라 수용되었고, 상위차원의 결정요소에 의거하여 그 하위차원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며 모든 계획에서의 논리성 역시 매우 질서정연한 위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기하학적 작도의 기본사항으로서 점은 선과 선의 교차로써 결정되듯 어떤 중요지점의 결정은 명분있는 일정한 선(또는 방향선)과 또 다른 한 선이 교차되는 것으로 정해져 가며 이에따라 都城의 宮과 主要施設 그리고 門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하여 결

정되어 가고 있다:

- 1) 도성계획은 크게 宮과 城에 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도성계획을 궁과 성을 포함한 도읍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라 한다면 그 하부계획으로 궁의 배치계획과 성곽계획이 있게된다.
- 2)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정축의 설정과 남대문 광화문 등 정축상의 주요지점들의 설정은 하부계획으로서의 궁과 성곽계획을 위한 기준점이 된다. 즉 정축에 의한 궁의 입지 기준점을 위한 하나의 방향선을 결정하고 정축에 대한 부축으로써 궁 입지 기준점의 최종결정을 하며, 같은 맥락의 방법과 과정으로써 도성계획의 중요지점들의 결정이 밝혀진다.
- 3) 宮의 경우, 정축에 의한 궁 기준점 설정을 위한 하나의 방향선이 결정되고, 정축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부축선에 의해 궁의 최종 기준점이 결정됨과 동시에 종묘 사직단의 기준점을 위한 일차적 방향선이 결정되는 등 도성내의 중요지점들의 결정과정이 나타난다.
- 4) 남대문을 비롯한 사대문과 사소문의 결정과정에서 결부되었을 현상들이 작도적 분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를 정리하면 사대문 결정에 의해 사소문의 결정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대문의 결정과정에서는 동서남북의 사방위에 입각한 방향선 적용이라는 원칙과 함께 그 변칙적 적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사소문의 결정에는 팔방위각의 적용이 아니라 사대문의 결정사항에 입각하여 적용되는 등 다소의 변칙적 적용이 눈에 띈다. 이로써 도성계획에서 적용된 각 원칙과 적용의 과정에는 상위차원의 결정사항과 하위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등의 위계적 적용이 뚜렷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광화문, 남대문, 종묘, 사직단, (원)종각 그리고 도성 및 사대문, 사소문의 계획을 중요 대상물들의 지점결정과 관련된 차원에서 밝히고, 이들 한양도성계획의 초기현상에서 보이는 도형적 특징과 도성계획에 개재된 이들 도형적 현상에서 보이는 방위개념을 살폈다. 그 결과 축은 4도의 방위각을 지니면서 이 축에 직교하는

부축의 개념으로 도출되는 주요 기간시설의 입지는 도성내 주요지점에서 작도되는 일정한 각을 지닌 방사선 상에 있음을 보았다. 한양도성계획에서 보이는 이 방위개념은 무엇보다도 그 기능적 역할에 대해 중요히 생각될 점이 보이며, 이러한 기능을 해온 내용들은 각 시대별로 중요히 여겨진 관념적 대상을 매개로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라시대의 경주와 조선후기의 화성에서 보이는 계획원리와 결부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한양도성계획에 개재된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 기능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좌표 또는 측지기준점 역할을 하는 지점들이 설정되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일관된 규칙에 의한 작도와 같은 것이다. 본고에서 살폈던 모든 내용은 도성계획에서 보이는 실상을 분석을 통하여 설명한 것이었지만, 이들 결과로부터 우리는 측 선정을 비롯하여 기타 주요 기준점 또는 축의 기점은 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축에 관계하는 부축 및 기준선들은 거의가 산이 되고 있고, 이들 기준점에 의거하여 도성 내의 주요기간시설의 위치가 정해지고 있다. 도성내의 사대문 사소문의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살필 수 있듯이, 기간시설의 위계에 따라 우선 결정되는 것과 선결정사항에 준하여 재기준 설정이 되면서 하위차원의 것이 결정되고 있다. 이 경우 기준의 깃점이 되는 것은 산과 같은 자연지물이 아닌 상위차원의 인공물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들어 천연기념수 백송 세그루의 경우와 같이 수목 같은 류의 것이 인공적으로 선택 식재되면서 기준점 내지 깃점이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살핀 한양도성의 경우에 한정된 연구결과로써 충분히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소 개괄적으로 언급한 경주나 수원의 화성 등의 경우에서도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듯이, 전통공간경영에서의 계획적 작도선이나 이들이 지닌 공간계획상에서의 상징적 기능적 역할은 충분히 살필 만한 가능성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방위개념에 입각한 도형성은 공간 계획상 주요대상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혹은 동

시에 그 입지의 좌표지정과 같은 류의) 중간매체 이자 수단이 되고있다. 이러한 중간매체로서의 방위각은 궁극적으로 자연현상에 매개된 관념적인 인위적 행위를 나타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전통사상에서 종종 거론되는易의 개념과도 결부시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參 考 文 獻

1. 김한배(1994) 「한국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백난영(1993) 「가야산 해인사의 입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서울특별시(1985) 「서울사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 보고서」.
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1977) 「서울육백년사」, 제1권.
5. 안영배(1978)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6. 원영환(1990) 「조선시대 한성부연구」, 강원대출판부.
7. 이규목(1993)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 「93서울학심포지움:현대서울의 뿌리 - 조선후기의 재발견」, 81-96.
8. 이규태(1993) 「이규태의 600년 서울」, 조선일보사.
9. 이상윤(1994)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이상해(1994) 「조선조초 한양도성의 풍수지리적 특성」, 「94서울학세미나:서울의 자연과 지리인식체계」, 47-72.
11. 이원교(1994) 「서울의 지리체계와 공간구조적 특성」, 「94서울학세미나:서울의 자연과 지리인식체계」, 15-46.
12. 정기호(1991) 「경관에 개재된 내용과 형식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19:2), 23-31.
13. _____(1992a) 「경복궁의 공간계획에 있어서의 축과 향에 관한 연구」, 「성대는문집 (과학기술편)」, (42:2), 389-396.
14. _____(1992b) 「불국사 석가 다보 두 탑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1), 13-17.
15. _____(1992c) 「불국사의 배치 및 세부형식의 검토」, 「사찰조경연구」, (창간호), 17-32.
16. _____(1993) 「인간과 공간:전통조경의 공간배치 및 구성에 관한 실증적 해석」, 「환경과 조경」, 1993. 9. 88-91.
17. 정기호, 전미경(1994) 「전통조경의 조형론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2:1), 111-120.
18. 최은정, 홍광표(1994) 「보길도 부용동 세연정정원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22:1. 135-148.
19. 한영우(1989)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